

■ 법제처 “농업용수 이용 농작물 세척 불가” 유권해석 파장

월동무 가공산업 타격 우려

농업용 지하수 이용 세척장 연 수천만원 비용 들 판도 “제주특별법 지하수법으로 관련 문제 해결 가능”

농업용수를 월동무 세척에 이용하는 안된다는 법제처의 최종 유권 해석을 두고 제주자치도내 농업과 지하수 입장이 엇갈려 최종 협의 결과가 주목된다.

법제처는 농작물을 물 세척만 하는 시설에서 지하수로 농작물을 물 세척하는 경우 그 지하수가 농업용수인지 여부(지하수법 시행령 제8조의2)에 대해 농업용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유권해석을 내리고 제주특별자치도에 최근 통보했다.

법제처는 식품산업진흥법 제19조의3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산물을 세척·박피·절단 등 단순가공한 식품 등을 농산물가공품으로 보아 그 생산 및 개발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만큼 재배지가 아닌 물세

척만을 위한 별도의 시설에서 농작물을 물세척하는 활동에 사용되는 지하수를 농업농촌기본법상 농업에 사용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해석했다.

이에 따라 그동안 농업용 지하수를 이용해온 제주지역 월동무 세척장은 연간 수천만원의 지하수 이용료를 내야할 처지에 몰렸다.

도내 농산물 세척장의 경우 지역별 수리계를 통해 공공농업용수를 이용해 왔으나 앞으로는 생활용수를 이용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월 경우 하루 물사용량이 30t 안팎인 점을 고려할 때 연간 사용료는 2000만원 안팎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게다가 주변에 상수도관이 없는 세척장은 문을 닫거나 상수관 연결이 가능한 지역으로 이전해야 할

것으로 보여 월동 무 가공산업에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에 대해 농정부서는 제주특별자치도특별법의 지하수법 권한 이양 조항을 적극 해석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어 최종 협의 결과가 주목된다.

제주특별자치도특별법 제379조와 이에 따른 지하수 관리 조례에 지하수를 농업용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표준산업분류를 활용할 경우 무 세척업도 농업으로 해석할 수 있다는 통계청의 의견으로 내부 협의를 이끌어간다는 계획이다.

제주자치도 농정당국 관계자는 “수년 전부터 세척 작업에 이용해 온 지하수를 이용하지 못하게 할 경우 월동무 산업에 상당한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여 관련 부서간 협의를 통해 도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결론을 도출해낼 계획”이라고 말했다.

위영석기자 yswi968@ihalla.com



“사진 왜 찍어” 13일 서귀포시 대정읍 송악산 인근 해안도로에 야생화 된 유기견 2마리가 나타나 행인들의 안전이 우려되고 있다. 강희만기자

서귀포학생문화원 삼매봉 이설 난항

도·교육청 현안 해결 TF 구체적 부지 놓고 협의 진행 도에서 사유지 포함 5필지 1만5500㎡ 대체 부지 제시 절대상대보전지역 건축허가 제한 대두에 재검토키로

서귀포학생문화원 등 이설 장소로 서귀포시 서흥동 삼매봉공원 부지가 검토되고 있으나 건축 행위 제한 문제가 제기된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도 주관으로 지난 12일 개최된 서귀포시 도시우회도로 개설 사업에 따른 도·교육청 현안 해결 태스크포스(TF) 회의 결과다.

13일 TF에 참여한 도, 도교육청, 서귀포시 관계부서의 말을 종합하면 이번 회의는 구체적인 부지를 놓고 우회도로가 지나가는 서귀포학생문화원 등 기관 이설 가능성을 논의한 자리였다. 후보지에 오른 삼매봉공원 부지는 지난달 21일 교육청에 관한 질문에서 지역구인 강상수 의원(국민의힘, 정방·중앙·천지·서흥동)이 교통·환경적 측면

에서 최적지라며 김광수 교육감에게 공개적으로 이설을 제안했고, 도에서도 주요 대상지로 모색해온 곳이다.

앞서 도교육청은 도로 개설 시 직접적 영향을 받는 서귀포학생문화원 등 이설을 위해 도에 2만㎡ 규모의 대체 부지를 요청했다. 현재 서귀포학생문화원 일대에 자리한 도교육청 소속 4개 교육기관 전체 부지가 총 3만㎡에 이르는 점에 더해 대체 부지를 확보하는 방안도 쉽지 않아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날 3차 회의에서 도는 도교육청에 삼매봉공원 내 도유지 2필지, 사유지 3필지 등 1만5500㎡(4700평)를 대체 부지로 제시했다.

하지만 해당 부지는 절대·상대보전 지역이어서 건축물을 지을 경우 2층 이하 1650㎡ 이내로 허용되는 등 건축 허가가 제한적이라는 점이 대두됐다. 이에 참석자들은 기관별로 추가 검토 등을 통해 다음 회의 때 논의하기로 했다.

도 관계자는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검토해보고 가능하면 삼매봉공원 일대에서 찾아보자는 이야기가 있었다”고 했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서귀포예술의전당 부지가 추가로 거론되지만 규모가 적을 것”이라며 “그렇다고 사유지를 매입해 4000평 넘는 부지를 확보하는 방안도 쉽지 않아 보인다”고 덧붙였다.

서귀포시 도시우회도로 공사는 서흥동 구간을 시작으로 현재진행형이다. 그동안 우회도로 사업을 둘러싸고 도로 개통에 따른 시민 불편 해소 주장 한편에 주 이용자인 아동·청소년 안전 우려 목소리 등이 맞서며 찬반 논란이 이어져왔다. 신희희기자 sunny@ihalla.com

제주 생산 경주마 시장 회복세 접어드나 생산자협회 경매장 낙찰률 코로나19 이전보다 상승

제주지역 경주마 시장이 코로나19 이전으로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제주시 조천읍 교래리에 있는 한국경주마생산자협회 경매장의 11월 말 기준 낙찰률이 39.8%를 보이는 등 2018-2019년의 수치를 넘어섰기 때문이다.

13일 제주시에 따르면 한국경주마생산자협회 경매장의 최근 5년간

경매 실적은 2018년(5회) 31.5%, 2019년 30.2%(5회), 2020년(5회) 22.6%, 2021년(6회) 32.9%, 2022년(11월 말) 39.8%로 집계됐다. 코로나19 영향이 컸던 2020년 20%대까지 떨어졌다가 2021년 이후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코로나19에 따른 경매 중단 등으로 경주마 판로가 막혔던 탓이

다. 실제 2020년의 경우 674마리가 경매에 나왔지만 낙찰된 경주마는 152마리에 그쳤다.

이와 관련 강병삼 제주시장은 13일 한국경주마생산자협회 경매장을 찾아 그동안 팬데믹으로 어려움을 겪어온 경주마 생산 농가, 마주들을 만나 현장의 의견을 들었다.

강 시장은 “말산업 발전과 경주마 생산 농가의 소득 향상을 위해 추진 중인 경주마 엑스레이 촬영 지원 금액을 확대하는 등 다양한 지원 방안을 강구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전선희기자

“윤석열 정권 노동 개악안 노동 지옥 서막의 전주곡”

민주노동당 제주지역본부는 13일 성명을 발표하고 “미래 노동시장 연구회의 권고문은 ‘저임금·장시간

노동·노조 파괴’의 노동 개악 완결판”이라며 “윤석열 정권의 이번 노동 개악안은 역대 정권의 노동 개악안 중 최악의 노동 개악안만 모아놓은 총체적 노동 개악안”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노동당 제주본부는 이날 성명

을 통해 “‘미래 노동시장 연구회 권고안’이라는 이름만 빌린 윤석열 정권의 이번 노동 개악안은 노동자들에 대한 선전포고이며 ‘자본 천국·노동 지옥’으로 향하는 서막의 전주곡”이라고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다. 김도영기자

내년 1월부터 유해야생동물 대리포획단 운영

서귀포시가 유해야생동물로부터 농작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대리포획단을 운영한다.

13일 서귀포시에 따르면 시는 유해야생동물(멧돼지, 까치, 까마귀

등)로 인한 농작물 경작지에 대한 피해 예방과 들레길 탐방객 안전을 위해 유해야생동물 대리포획단 공개모집을 통해 대리포획단 구성을 완료하고 내년 1월부터 본격적으로

활동에 나선다. 대리포획단은 27명으로 멧돼지 포획팀 8명, 유해조수(까마귀, 까치 등)포획팀 19명의 지역 업체로 구성됐다. 포획 활동기간은 내년 1월부터 12월까지다. 이태윤기자 ity9456@ihalla.com

조합장에 도전하시는 후보자를 찾습니다

후보자를 당선인으로 만드는 힘을 실어드리겠습니다

제1회, 제2회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 당사 후보자들의 승리가 증명합니다!

조합장 선거 위탁선거법 안내 필승 전략 설명회

<p>일시 2022년 12월 21일 (수) 오후 2시</p> <p>장소 한라일보사 회의실</p> <p>신청 한라일보사 기획부 T.750-2543, 750-2291</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1부: 위탁선거법(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강사: 김도균(VLS선거미디어컨설팅 이사) ·위탁선거법 요점정리 ·참고판례 응용 중심 해설 • 제2부: 조합장 당선 필승전략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강사: 유광혁(VLS선거미디어컨설팅 총괄본부장)
---	--

유권자들이 압도적으로 선택한 선거미디어컨설팅회사, VLS로 지금 바로 연락주십시오. VLS는 1지역 1후보자 계약을 원칙으로 합니다. 지역에 따라 조기마감을 할 수 있습니다.

- 농협 중앙회장 및 당선자 콘텐츠 제작 다수
- 조합장 전문 선거법 및 형사법 법률전문가 다수

- 지역 언론 네트워크 소통전략가 다수
- 대통령, 국회의원 후보자 콘텐츠 제작 및 조직관리 다수 참여

최선을 다해 상담해드리겠습니다. 조합장 선거문의 1666-8258, 홈페이지 WWW.VLS.CO.KR

“진짜선거는 지금부터입니다!”